

##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 미 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대 일본 정부라는 대립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평화박물관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키나와 전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체험자의 증언을 통해 전하는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지역 내의 전쟁 유적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는 '하에바루 문화센터', 이 세 곳의 박물관을 통하여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전쟁체험자에서 비체험자로 전쟁을 기억하는 주체가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 기억을 계승하고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오키나와 전투, 전쟁 기억,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하에바루 문화센터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1. 머리말

류큐 처분에서 시작하여 오키나와 전투로 끝나는 근대의 역사, 조국복귀 투쟁과 미군기지 피해로 대표되는 전후사를 가지고, 1980년대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함께 평화 학습의 장으로서 알려진 오키나와현(沖繩県)에는 그 설립이나 활동에 있어서 현민(県民)이 자신의 전쟁 체험을 이야기하며 절대적인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박물관이 여럿 있다. 전쟁을 다루는 박물관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자료관 정도밖에 없었던 1975년에 개관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沖繩県平和祈念資料館)을 비롯해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1989), ‘하에바루 문화센터’(南風原文化センター, 1989), ‘반전평화자료관 누치두 다카라의 집’(反戦平和資料館ヌチドゥタカラの家, 1984), ‘사키마 미술관’(佐喜眞美術館, 1994), ‘쓰시마마루 기념관’(対馬丸記念館, 200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이 기억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것은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이다.

1945년 3월 말부터 6월 말에 걸친 오키나와 전투는 오키나와의 현민 4명 중 1명(합계 약 12만 명)이 사망해 군인·군무원보다 일반주민의 희생자가 웃돌았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1)</sup>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은 전쟁에 기인하는 피해, 연합군에 의한 피해 이외에도 일본군이 주민을 참호에서 쫓아내 포격에 노출되어 희생되거나 미군의 스파이 혐의로 학살당하고, 일본군의 강제에 의해 집단자결을 하는 등 일본군에 의한 피해를 체험했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군이 주민에게 가했던 부당한 처사는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로 표현되며, 전후 오키나와 전투를 기억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끝난 직후부터 지역주민과 각 시정촌(市町村) 등에

1) 1976년 3월, 오키나와현 생활복지부 원호과 조사에 의하면, 오키나와 전투의 사망자 수 약 20만 명 중, 오키나와 현민의 희생자는 일반 주민이 약 9만 4천 명, 오키나와 출신의 군인·군무원이 약 2만 8천 명으로 합계 약 12만 2천 명이다. 그 외 본토 출신의 일본군 전사자는 약 6만 6천 명, 미군 전사자는 1만 2,520명을 헤아린다. 이것은 일본 후생성이 공인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일반주민의 아사와 말라리아 병사, 영국군, 한반도 출신자(강제 연행된 군부(軍夫)와 위안부 등)와 대만 출신자의 희생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大城將保 1983:55-71)

의한 유해 수집과 위령탑 건립은 오키나와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전장이 된 이토만시(糸満市) 마부니(摩文仁)에 1946년 2월 건립된 ‘혼백의 탑’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까지 140기가 넘었으며, 2018년 현재 격전지 남부를 중심으로 낙도를 포함해 442기를 헤아린다(沖繩県子ども生活福祉部 保護・援護課 2019).

또한 1954년 도도부현(都道府県) 최초로 홋카이도가 세운 위령비를 비롯하여 1960년대 중반 각 도도부현의 위령비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 모든 도도부현이 오키나와에 위령비를 건립하였지만, 비석에 오키나와 전투를 언급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공감하는 비는 교토의 탑뿐이다. 오키나와 전투의 전몰자만 위령한 탑보다, 오히려 오키나와라는 땅을 빌려 도도부현별 전몰자 총체 위령비의 오키나와 지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 현지에서는 오키나와의 야스쿠니화(靖国化)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いとうたけひこ・宮崎郁江・杉田明宏 2012:21—22). 도도부현의 위령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둘러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오키나와 근현대사 연구는 패전 직후부터 생성되어 온 군인을 중심으로 한 전기(戰記)와 담론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오키나와 전투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파헤친 『오키나와현사』(沖繩県史) 및 시정촌사의 간행을 이끌었다.<sup>2)</sup> 1975년 개관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의 증언을 전면에 내세워 전시하여, 구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 전투의 이미지를 주민 시점에 근거한 오키나와 전투의 상(像)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는 오키나와 주민의 피해를 중시한 역사 인식이 많은 오키나와현민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정부(문부성)를 중심으로 주민 피해와 희생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역사 인식이 병존해 때때로 오키나와현민으로부터 반발을 사 왔

2) 『오키나와현사』 전 24권 중 오키나와 전투 관계가 3권(『沖繩県史 第8巻各論編7 沖繩戦通史』(琉球政府, 1971年), 『沖繩県史 第9巻各論編8 沖繩戦記録1』(琉球政府, 1971年), 『沖繩県史 第10巻各論編9 沖繩戦記録2』(沖繩県教育委員会, 1974年)이나 차지하고 있다.

다. 1982년의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일본군에 의한 오키나와 전투 중의 주민 학살이 삭제되었지만, ‘섬 전체’(島ぐるみ) 항의를 통해 다시 기술된 것이나, 2007년의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출판사가 삭제한 집단자결에서의 일본군 ‘강제성’에 관한 기술이 현민 11만 명이 참가하는 항의 대회에 의해 부활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0년 3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지바현)이 <현대> 전시를 새롭게 만들면서 준비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전시 설명 중에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한 문구가 전시 개장 직전 삭제돼 ‘집단자결에 몰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오키나와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라는 대립 구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평화박물관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오키나와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다. 그나마도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개찬(改竄) 사건을 다루는 연구인데, 자료관 전시 내용의 변화를 통해 전쟁 기억의 재편을 둘러싼 행위 주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분석한 조성윤(2011)의 논문과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개찬 사건을 ‘위안소’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성이 깊은 전시의 변경에 주목하여,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을 넘어 ‘공범화’라는 개념으로 사건을 고찰한 다마시로 후쿠코(2019)의 연구가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키나와 전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체험자의 증언을 통해 전하는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지역 내의 전쟁 유적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는 ‘하에바루 문화센터’, 이 세 곳을 선정하여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sup>3)</sup> 전쟁체험자에서 비체험자로 전쟁을 기억하는 주체가 변화하는 시대

3) 이 세 곳의 박물관을 선정할 이유는 현장견학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은 오키나와 전투를 기억하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박물관이며,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과 ‘하에바루 문화센터’의 전쟁 기억의 계승을 위

를 맞이하여 전쟁 기억을 계승하고 공유하는 장소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 II.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 1. 자료관의 설립과 직후의 리뉴얼

1945년 패전 이후 점령군에 의해 일본 본토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오키나와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1952년 정식으로 일본에서 분리됐다. 미국의 시정권(施政權) 하에 놓인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의 토지 탈취에 대한 주민 투쟁, 조국 복귀 투쟁 및 반기지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자료관 설립 운동이 시작됐다. 그 추진 모체는 조국 복귀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오키나와 교직원회(현재의 오키나와현 교직원조합)로, 자료를 모으고 여러 차례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차원의 운동이나 현민의 의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최초의 박물관이 설립되게 된다. 당시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복귀문제대책 담당 장관이었던 야마나카 사다노리(山中貞則)의 주도하에, 복귀 기념 최대 이벤트인 오키나와 국제해양박람회에 맞추어 이토만시 마부니의 평화기념공원 한구석에 1975년 6월 11일 개관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이다(大城將保 2002:49-59).

전역 국고보조로 건립된 현립의 자료관은 기본구상도 기본계획도 없이, 또 전시기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은 채 현의 생활복지부 원호과(援護課) 주관하에 설립이 추진되었다. 원호과는 중앙정부의 후생성으로부터 위임받은 원호 업무의 창구로, 원호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오키나와현 전몰자 위령 봉찬회’에 자료관의 관리·운영이 위탁되었다. 현 의회에

---

한 특징적 활동은 전쟁체험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체험자를 대신할 비체험자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서는 ‘오키나와현립 평화기념자료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1974년 6월 13일 제정)’가 가결되어 당시의 야라 조묘(屋良朝苗) 현 지사를 비롯한 현 의회도 중앙정부 성향의 현정(縣政)이 추진한 자료관 설립에 찬성하였다(嶋津与志 1983:150).

개관한 자료관의 전시는 현민의 전쟁 체험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 육군의 기념관’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이 투영된 전시로 평가받아 개관 직후부터 현민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연구자와 교육단체, 평화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전시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의 고조에 의해 백지상태로 전시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1978년 재개관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일본군에 의한 주민 학살, 집단자결 내용 등이 전시에 담겼고, 주민의 처절했던 체험과 증언은 전시 자료의 핵심이 되었다.<sup>4)</sup>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개관은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라는 대립 구도를 크게 부각시켰다. 개관 후 현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재개관은 그때까지의 군인의 전기나 이야기로 전해지던 오키나와 전투를 비판적으로 파악해, 주민의 그것으로 고쳐 쓰려는 노력의 하나였고, 1970년대 이후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들의 처참했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은 많은 현민에게 공유되게 되었다.

이러한 ‘군인의 시점’에서 ‘주민의 시점’에 의한 전시로 전환하고 나서 약 20년 이상에 걸쳐 오키나와현과 일본을 대표하는 평화박물관으로서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전해 온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이 다시 한번 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시 내용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새로운 자료관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었던 1999년 8월경의 일이다.

## 2.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개관

1999년 8월 11일, 새로운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계획에서 현의 행정당국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을 학살한 일본군의 전시를 ‘잔학

4) 개관까지의 움직임과 그 후의 비판, 리뉴얼의 자세한 운동에 관하여는, 嶋津与志 (1983:150-154) 참조.

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감수위원회에 상의 없이 무단으로 가마(ガマ)<sup>5)</sup>의 참극을 재현한 전시를 변경시켰다는 실태가 『류큐신보』(琉球新報)에 보도되면서 현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현민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가마로 피난한 오키나와 주민에게 총검을 겨누고, 우는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에게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라고 명령하는 일본군의 모형복원전시에서 총검을 빼버린 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사건은 현정을 뒤흔드는 문제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자료관 구상은 혁신적인 현정의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현 지사가 ‘평화의 초석’(平和の礎, 1995년 완성)<sup>6)</sup>과 ‘오키나와현 국제평화연구소’<sup>7)</sup>와 함께 진행해 온 평화 사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의 현 지사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이나미네 게이이치(稲峰恵一) 씨가 당선된 후 ‘오키나와현 국제평화연구소’가 백지화되면서, 감수위원회가 이미 정한 전시 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한 ‘오키나와 평화 네트워크’, ‘오키나와 전투 기록필름 1피트 운동의 모임’, ‘현의 역사 교육자 협의회’의 3단체가 전시 내용을 조기 공개하라는 질문장과 요청서(7월 19일)를 현에 전달하면서 전시 개찬이 발각된 것이었다(松永勝利 2002:133-138).

언론사들이 자료관 전시 개찬 문제를 속속 보도하는 가운데 현은 급히 감수위원회를 개최(8월 26일)하여 전시 도안을 변경한 데 대해 감수위원들에게 사과하고, 총검을 빼버린 일본군에게 총을 들려주고, 부상병에게 청산

5) 구 일본군이 진지로 사용한 자연 동굴을 오키나와 말로 가마라고 한다.

6) ‘평화의 초석’에는 ‘국적, 군인, 군무원 구별 없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2023년 6월 23일 현재 새겨진 이름의 수는 241,686명, 그중 오키나와현 149,611명, 오키나와현 외 도도부현 77,485명, 미국 14,010명, 영국 82명, 한반도 출신자는 462명(한국 382명, 북한 82명), 대만 출신자 34명이다. 오키나와현 HP

<https://www.pref.okinawa.jp/site/kodomo/heiwadanjo/heiwa/7623.html>

(검색일:2023.9.5) 공식 오키나와 전투 전몰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은 영국군-한반도와 대만 출신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키나와에 있던 130곳의 ‘위안소’에 있던 조선인 여성의 희생자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7) 2009년 오타 전 지사는 개인사무소(NPO법인)로 ‘오키나와 국제평화연구소’(나하시)를 설립하고 오키나와 전투 사진을 중심으로 전쟁 자료를 전시했으나, 2017년 6월 오타 씨 별세 후 운영상의 경제적 이유로 같은 해 9월 30일 폐관했다.

가리가 든 우유를 강제로 먹이며 자결을 강요하는 위생병의 모형도 원래대로 전시하기로 했다. 현의 전시 관여는 재현 전시뿐 아니라 ‘학살’을 ‘희생’으로 고쳐 쓰는 등 일본군의 주민 학살과 잔학성을 희석하는 형태로 대폭적인 수정을 시도한 정황이 표면화되었다(松永勝利 2002:162).

〈표 1〉 감수위원회의 주요 전시 계획과 현정에 의한 변경 및 ‘미에케시’(見え消し)사항(石原昌家·大城将保 2002:272-294)

	감수위원회에 의한 전시계획의 주요점	현정에 의한 전시 내용의 변경 및 ‘미에케시’ 사항
오키나와 전투로 가는 길	(1) 일본이 외국을 침략해 가는 역사적 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2) 일본이 외국에 대한 가해의 실태를 명확하게 나타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전쟁의 경위를 나타내는 지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li> <li>• ‘본토결전준비의 버림돌(捨て石) 작전’은 ‘본토결전준비를 위한 지구전(持久戦)’으로 변경</li> <li>• 「송두리째(根こそぎ) 동원」은 「현민의 동원」으로 변경</li> <li>• 「15년 전쟁」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변경</li> <li>• 일본군의 오키나와인관(沖繩人観)전시를 삭제</li> <li>• 「카메라가 포착한 일본의 가해」삭제</li> </ul>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	(3)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자국 군대가 자국민을 스파이로 취급하여 학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을 살해하거나, 죽음으로 몰아넣어 간 것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에는 일본군의 오키나와 인관을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하고,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지상 전투에 돌입하기 직전의 쇼와 천황에 대한 측근의 상주문(上奏文) 등의 사료를 명시하여, 사료를 통해 쇼와 천황이 오키나와 전투와 어떤 관계 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군에 의한 스파이 단속 항목 삭제</li> <li>• 위안부 설치 지도는 전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li> <li>• ‘집단죽음으로 생각되는 사진’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들’로 변경</li> <li>• ‘학살’은 ‘희생’으로 용어 변경</li> <li>• ‘참호에서 쫓겨난 수’ 삭제</li> <li>• ‘일본군에 의한 주민 희생의 수’ 삭제</li> <li>• ‘조선인의 학살-대만인의 학살’삭제</li> <li>• 포로수용소에 수용되는 조선인 군부(軍夫)의 사진 삭제.</li> <li>• 가마에서 일본군의 잔학성이 너무 강조되지 않도록 배려</li> <li>• ‘가마에서의 비극’은 ‘오키나와 전투와 가마’로 변경</li> <li>• ‘어린이의 입막음을 명령하는 병사’ 표</li> </ul>



태평양의 요석		제 변경 • ‘청산가리로 자결 강요’ 표제 변경
	(4) 미군 점령하에 놓이게 된 과정이나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천황의 전후 책임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적어도 오키나와가 1972년에 ‘일본 복귀’할 때까지, 과연 일본이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5) 미군의 기지 형성과 기지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사고, 인권 억압. (6) 다양한 탄압을 극복하고 ‘일본 복귀’를 실현시켜 가는 주민의 여러 운동.	• 전후 오키나와 장기점령을 희망한다고 구두로 연합군에 전한 ‘천황 메시지’ 삭제 • 미군통치 정책에서 현민 생활에 좋은 면을 가져다준 부분도 전시에 추가한다. • ‘복귀한 기지 오키나와’는 ‘복귀한 오키나와’로 표제 변경 • ‘기지의 중압과 주민’은 ‘기지와 주민’ • ‘복귀 후도 계속되는 사건·사고’에서의 ‘사건·사고 연표’는 복귀 후 흐름 전반으로 하고, 사건·사고만을 해설하는 전시는 하지 않는다.

새로운 평화자료관의 전시 개찬이 보도된 후,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분관으로 1999년 5월에 막 개관한 ‘야에야마 평화기념관’(八重山平和祈念館, 이시가키시)의 전시 내용도 현 집행부에 의해 변경되었음이 『류큐신보』에 의해 보도(9월 12일)되었다. 야에야마 평화기념관은 일본군의 명령으로 강제로 산악지대로 퇴거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어간 실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개관 초기 현의 담당 부서가 감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채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캡션을 고쳐 쓰거나 사진 패널 일부를 떼어낸 사실이 발각되어 전쟁 중 말라리아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保坂廣志 2002:235-244).

새로운 평화기념자료관과 야에야마 평화기념관의 전시 개찬과 변경 경위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나미네 당시 현지사가 ‘너무 반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오키나와도 일본의 한 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전시(기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8) 미에케시(見え消し)는 행정용어의 하나로, 문서를 수정하는 경우 행간·여백 부분에 수정문을 적고, 수정한 부분을 선을 그어 지우고 수정 이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石原昌家·大城將保 2002:272)

일련의 전시 개찬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은 채, 감수위원회의 전시 기본안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松永勝利 2002:190-209).

2000년 4월 1일 새롭게 개관한 평화기념자료관은 ‘주민의 시점에서 파악한 오키나와 전투’를 전시이념으로 하여 1층과 2층의 두 구역에 상설전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층의 <역사를 체험하는 존>은, <오키나와 전투로 가는 길>,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철의 폭풍>,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지옥의 전장>,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증언>, <태평양의 요석><sup>9)</sup>의 다섯 테마로 되어 있다.

<표 2>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구성(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2007)

테마	전시 내용
오키나와 전투로 가는 길	①류큐 처분과 국경 획정, ② 청일전쟁·러일전쟁·한국병합, ③제1차 세계대전과 아시아의 정세, ④전후의 공황과 오키나와, ⑤15년 전쟁과 남진정책, ⑥국책 이민, ⑦ 파시즘의 대두와 제2차 세계대전, ⑧황민화 정책, ⑨ 식민지·점령지에서의 황민화 정책, ⑩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움직임, ⑪오키나와 이민·현지 주민의 희생, ⑫ 오키나와 수비군의 전개와 비행장 건설- 제32군의 진용, 오키나와의 위안소(위안소 분포도) ⑬ 총동원 체제, ⑭ 오키나와의 총동원 체제, ⑮ 스파이 단속, ⑯ 10·10 공습, ⑰ 결전 준비, ⑱ 소개와 전시 선박의 희생, ⑲ 미군 상륙 전야의 오키나와 수비군, ⑳ 각국의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태평양 전쟁’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 - ‘철의 폭풍’	(1) 오키나와 전투의 전투 경위 ①오키나와 전투 전체의 개요, ② 각 지역의 상황 : 게라마 열도 · 오키나와 본섬 상륙, 본섬 북부 · 이에지마 전투, 본섬 중부 · 슈리 전투, 본섬 남부 전투, 다이토 제도 · 쓰켄지마 전투, 미야코 · 야에야마 전투 (2) 주민 희생의 양상 ①철의 폭풍, ②일본군에 의한 주민 희생, 참호에서 쫓겨남, 스파이 혐의 학살, 일본군 강제에 의한 집단사, 영유아 학살, ③일가 전멸, ④조선인의 학살, ⑤식량 강탈, 아사,

9) <태평양의 요석>은 전후 미군 점령 하의 오키나와에 관한 전시로,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저지하는 ‘태평양의 요석’으로 위치시키고, 미군의 전략거점으로써 미군기지를 확대해 나갔다.

테마	전시 내용
	⑥부상병의 유기, 청산가리 처치, ⑦묘지와 주민, ⑧가마(동굴)의 형성, 가마의 특징, ⑨전쟁 말라리아의 피해 파괴된 문화재, 제32군 사령관의 명령,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미·일 전력의 비교,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미·일 양군의 손해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지옥의 전장-	(1)가마(동굴):재현 전시 ①피난민·일본군, ②야전 병원·청산칼리, ③작전회의·돌격대, ④투항 뼈라·스파이 혐의 (2)죽음의 방향: ①미군이 촬영한 오키나와 전투의 사진, ②오키나와 전투 당시 주민의 기모노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증언-	145명의 오키나와 전투 체험자에 의한 증언문, 약 500명의 증언 영상
태평양의 요석	(1) 미군 점령 하의 주민: 수용소에서의 생활, 점령군의 정책, 폐허 속에서의 생활 재건 (2) 아시아·태평양 안의 오키나와: 일본의 패전과 점령, 미군의 여러 시책, ‘미국 민정부’의 통치기구 (3) 기지의 섬에 살아: 인권 탄압, 북부·낙도의 전후, 강화되는 기지·토지 접수, 핵무기의 배치와 연습, 베트남 전쟁, B52·독가스 배치, 핵무기·B52·독가스 철거, 코자 소동, 북귀 전 사건·사고 (4) 북귀 운동, 북귀한 오키나와와 기지: 불타오르는 북귀 운동, 반환 교섭의 경위, 북귀의 날, 북귀로 바뀌는 오키나와, 기지의 현상, 북귀 후의 사건·사고, 현민 총 결기 대회 (5) 미래에의 평화창조 :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변모하는 세계정세, 21세기의 평화창조

새로운 자료관의 전시는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연속성 속에서 오키나와 전투를 규명하고 ‘절대적 평화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주민들의 증언은 전시를 구성하는 중요 자료로 배치하고 상설 전시 <주민이 본 오키나와 전투-증언>과 정보 라이브러리에서 약 1,000명의 전쟁체험자 증언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sup>10)</sup>

10) 2019년부터 일본어 외 영어, 중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말레이어의 7개 국어로 번역한 오키나와현 출신의 전쟁체험자 70명의 증언 영상을 특설 홈페이지 <戰世の記憶—戦争体験者多言語証言映像(전쟁의 기억 - 전쟁체험

청일·러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식민지·점령지에서의 황민화 정책, 전시 중의 위안소의 설치와 강제 동원 등, 오키나와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가해자로서의 오키나와의 역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폭 체험”이나 ‘오키나와 체험’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사실’이라고 한 1995년의 ‘나하-히로시마-나가사키 피스 트라이앵글 서밋’에서의 어필이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로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오키나와를 단순히 피해자화하지 않고 가해자로서의 일본과 오키나와를 마주하고자 하는 전시는 일본 본토의 여러 평화박물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전시로 일본의 역사박물관과 평화박물관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3. 전시 개찬은 왜 일어났는가

1999년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내용이 보수계 현정 하에서 개찬될 뻔한 사건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의 지시로 정리된 『전국의 전쟁박물관에 관한 조사보고서』(1996년)가 나오면서 전국 각지 평화박물관에서의 구 일본군 가해와 관련된 전시 내용이 반일적이라든가 자학사관이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sup>13)</sup>. 『보고서』에서

자 다국어 증언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http://peace-museum.okinawa.jp/evidence/> (검색일:2023.9.5.)

- 11) 1995년 6월 24일 다수의 전쟁 희생자를 낸 3개 시가 전쟁과 평화를 생각하기 위한 ‘나하-히로시마-나가사키 피스 트라이앵글 서밋’을 나하 시민회관에서 열고, 3개 도시의 시장 이름으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어필을 채택하였다(平岡敬 1996:70).
- 12) 조성윤(2011:89-94)은 모형복원전시의 설명이 불충분해 기획 의도와 동떨어진 전시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다마시로 후쿠코(2019:456)는 교과서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오키나와의 ‘위안소’ 분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연구 성과에 기초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 13) 1996년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난징대학살 등의 일본군의 가해행위를 전시한다는 보도로 시작된 보수파의 평화박물관 공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하시모토 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수뇌 회의에서 전국 각지의 평화박물관에 전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보수세력의 비판은 가해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쟁 중의 일본 비판을 허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은 ‘전쟁 체험의 주민증언은 일본군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증언뿐이다’라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전시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山辺昌彦 1998:163). 그 여파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여한 오키나와 전투 사진 패널이 문제화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현민이 겪은 전쟁의 비참함을 둘러싼 본토와의 인식차가 여실히 드러났다.<sup>14)</sup>

이러한 전국적인 동향에 더해 1998년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8년 만에 보수계 현정으로 이행한 것은, 새로운 자료관의 전시 개찬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sup>15)</sup> 오키나와의 경제진흥을 위해 정부와 양호한 관계를 중시한 새로운 보수계 현정은 ‘오키나와도 일본을 구성하는 한 개의 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기본 인식에 더불어 항상 국가의 방침을 살피는 자세를 보였다. 2000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국 정상회의’(서미트)의 유치 운동에 성공한 보수계 현정은,<sup>16)</sup> 정상회담 관계자와 전국(본토)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정의 오키나와 전투 인식, 즉 앞의 혁신계 현정 하

---

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山辺昌彦 1998:166-169).

- 14) 1998년 6월,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열린 <사세보 공습·평화 자료전>에서, ‘사세보시 공습희생자 유족회’ 등의 시민단체가 전시가 예정되어 있던 구 일본군에 의한 중일전쟁 당시의 중국인 포로의 처형과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집단지결’ 등 8장의 사진 패널이 시 간부의 요청으로 개최 하루 전 철거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시마네현 K시의 시의회에서 『여름 친구(夏の友)』(교직원조합 발행의 어린이용 교재)에 게재된 오키나와 전투의 사진이 문제가 되어 캡션 수정을 강요당했다(石原昌家 2002:108-124).
- 15)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1996년에 미·일간에 반환이 합의된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였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결해서라도 현내(県内) 이전을 반대하겠다고 한 현직의 혁신계 오타 씨에게, 조건부로 용인한 후 정부와 연계해 오키나와의 경제진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보수진영의 이나미네 씨가 승리한 것은, 정부와의 관계 개선, 기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기대한 현민의 선택으로 분석된다(松澤誠 2015:275-277).
- 16) 세계적 이벤트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오타 현지사 정권에서 후보지로 나섰지만, 다른 7개 후보지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보수계 이나미네 지사는 오키나와의 서미트 유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격적으로 오키나와를 서미트 장소로 선정한 것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는 가운데, 기지의 현내 이전 용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기지 투쟁의 저지를 노린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新崎盛暉 2005:200-201).

에서 만들어진 전시가 아닌 구 일본군의 오키나와 주민에 대한 가해성을 희석시킨 ‘반일적’이지 않은 새로운 평화자료관을 보여주려고 했다.

현립 자료관의 전시 개찬 사건은 종래 오키나와 전투에 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라는 대립 구도가, ‘혁신’과 ‘보수’의 대립 속에서 오키나와 내부로부터 역사 인식에 대한 변경이 가해져 오키나와 현대 오키나와현민이라는 구도로 바뀌게 된 사건이라 평가되기도 한다(야카비 오사무2009:198). 그러나 2007년 9월, 문부과학성이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집단지결’ 기술 중 ‘군 명령’과 ‘군의 강제’의 삭제를 권고한 데 대해, 오키나와현 41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및 현 의회에서 검정 의견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어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의 보수계 현정 속에서도 초당파에 의한 ‘교과서 검정 의견철회를 요구하는 현민 대회’가 섬 전체 투쟁으로 진행된 것은 오키나와 전투 인식을 둘러싸고 정부·본토와는 긴장 관계에 있지만 오키나와현 내 갈등은 거의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새로운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개찬은 단순히 오키나와현 내 혁신과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역사 수정주의적 운동을 배경으로 오키나와현의 정치경제적 구조, 또 오키나와현과 일본 정부와의 관계와 연동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오키나와현의 재정구조와 더불어 관광·기지 수입·국가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현민의 경제구조는 일본 복귀 후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미군기지 문제와 경제진흥 문제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하는 ‘혁신’과 ‘보수’가 대치하는 정치적 상황과 결합하고 있었다. 1998년 혁신계 현정에서 보수계 현정으로 교체된 후 오키나와 경제진흥을 위해 정부와 좋은 관계를 우선시한 보수 현정은 ‘전시 개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전투 인식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를 취하여 오키나와현의 전쟁체험자를 비롯한 현민의 전쟁 기억 계승에 대한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 Ⅲ.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전쟁 기억을 잇는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은 오키나와 전투를 둘러싼 인식이 정치에 농락되는 가운데 정치와 일선을 긋고 국가나 현, 시 등의 공적 자금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내세워 1989년 개관하고 활발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료관은 개관 당시부터 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루(南風原) 참호(壕)에서 부상병의 간호에 종사한 ‘히메유리 학도’<sup>17)</sup> 생존자가 전쟁의 ‘증언사’(証言員)로 활동하며 전쟁 체험을 전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동급생과 교사, 유족에 대한 통한과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자책으로부터, 전후 오랫동안 언급을 피해 왔던 ‘히메유리 학도’ 생존자들이 희생된 학우들을 떠올리며 전쟁의 실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가 되고 나서의 일이다.

1980년, 전국 8개 도시와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어 큰 반향을 불러온 전시회 <히메유리의 소녀들>(아사히 신문사·오키나와 타임스사 공동개최)은 훗날의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설립의 계기가 되었고, 1982년에 히메유리 동창회 총회에서 자료관 건설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히메유리 학도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자료위원회가 결성되어 7년간 생존자의 증언 채록, 참호(壕) 조사, 전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을 수행했다. 그리하여 1989년 6월 23일 ‘히메유리 학도’의 유족이 1946년에 건립한 ‘히메유리의 탑’ 옆에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오키나와현 이토만시)이 개관했다(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04:148-149).

개관 후 생존자들은 ‘증언사’로 활동을 계속했다. 개관 당시의 전시는 ‘증언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물에 관한 해설문은 거의 없었고, ‘증언사’가 오키나와 전투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전시의 일부였

17) ‘히메유리’(ひめゆり)는 본래 백합의 일종인 하늘나리 꽃을 의미하지만, ‘히메유리 학도’의 ‘히메유리’는 오키나와현립제일고등여자학교(沖縄県立第一高等女学校) 학교 홍보지의 이름 ‘오토히메’(乙姫, 용궁 선녀)와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의 학교 홍보지의 이름 ‘시라유리’(白百合, 흰 백합)를 아우르는 ‘히메유리’라는 명칭에서 유래한다.

다. 개관 당시 27명으로 시작한 ‘증언사’는 연인원 30명이 활동하였고, 전장을 아는 ‘히메유리 학도’ 생존자의 관내 증언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방문객이 찾는 평화관광의 명소가 되었다.<sup>18)</sup>

‘증언사’ 대부분이 70대가 되던 2001년, ‘증언사’들은 자신들이 전시실에 서지 못하게 될 미래를 생각해 전쟁 체험을 전하는 활동을 체험자에서 비체험자로 이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전시 리뉴얼·후계자 육성·생존자 증언 영상기록을 세 가지 축으로 한 ‘차세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04년 4월에 리뉴얼 오픈한 전시에는 생존자와 학예사가 토론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해설문이 설치되었다.

또한 2005년 ‘증언사’ 대신 전쟁체험자의 뜻을 이어받아 전시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전쟁 비체험자의 ‘설명사’(説明員)가 1명 채용되었다. ‘설명사’의 채용은 ‘차세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 9월에 이루어진 유럽 각지의 평화 시설 시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립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박물관(폴란드)에서 박물관 최초이자 유일한 외국인 공식 가이드 나카타니 다카시(中谷剛)의 설명을 듣고 전쟁의 비체험자에 의한 전쟁 기억의 계승 가능성을 실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안네 프랑크 하우스(네덜란드)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박물관 직원으로 ‘설명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으로써 관의 정식 직원으로 전쟁 비체험자의 ‘설명사’ 채용이 실현된 것이었다(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10:169-170).

‘설명사’도 ‘증언사’와 마찬가지로 전시실에서 관람객에게 전쟁에 관하여 설명하지만, 전쟁의 체험자와 비체험자라는 큰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증언사’에서 ‘설명사’로 강화(講話) 활동의 주체가 옮겨 간 것은 세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2018년 3월, 기존 ‘히메유리 학도’의 생존자가 맡고 있던 관장직에 전쟁 비체험자인 후텐마 조케이(普天間朝佳)가 취임함으로써, 자료관 활동의 중심이 사실상 전쟁체험자에서 비체험자로 옮겨감을 실감케 했다.

2021년 4월 12일, 2004년 이후 두 번째 리뉴얼이 전후에 태어난 스태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쟁에서 더 멀어진 세대에게>를 주제로 한 새로

18) 2019년 11월 3일 현재, 개관 이래 입장객 수는 총 2,300만에 이른다(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20.5.31.:3).



운 전시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동영상 등의 시청각 표현이 늘어났으며, 전후 태생의 스태프가 담당자가 되어 전시해설도 고쳐졌다. 두 번째 리뉴얼의 가장 큰 변화는 살아남은 ‘히메유리 학도’들의 전후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설립, 개관 후 전쟁 체험을 전하는 활동을 소개하는 <히메유리의 전후>라는 전시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sup>19)</sup> 자료관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전 ‘히메유리 학도’의 활동은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이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비체험자가 자료관 활동의 중심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전쟁의 실상을 계승하는 것에서 시작해 차세대 계승으로, 그리고 더 멀어진 세대로의 세대교체에 대응해 온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의 활동은 기억을 남기고 전하는 장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 기억을 기억하고 구전하려는 ‘증언사’들의 활동이 늘 지지를 받아온 것은 아니었다. ‘차세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던 2005년 2월, 아오야마 가쿠인 고등부(青山学院高等部, 도쿄)가 입학시험의 영어 과목에 ‘히메유리 학도’가 체험한 오키나와 전투 증언을 ‘지루하다’라고 표현한 영문을 기술해 출제한 것이 드러나, 전 ‘히메유리 학도’를 비롯한 현 내외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있었다.<sup>20)</sup> 입시 문제 사건은 오키나와의 전쟁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승하면 좋을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으로서, 전쟁 기억의 계승은 체험자와 박물관의 일방적인 발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비체험자와의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공동작업임을 보여주었다.

19) 전시 구성은 <히메유리의 학교>, <히메유리의 전장>, <히메유리의 증언 영상>, <진혼>, <히메유리의 전후>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리뉴얼의 개요와 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료관 소식지인 『資料館だより』第67号(2021.6.23.)와 第68号(2021.11.30.)를 참조.

20) 자료관 관장 모토무라 츠루(本村つる)는 전쟁 증언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입시 문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다시 한번 ‘차세대에의 계승’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2006).

#### IV. 전쟁 유적이 말하는 오키나와 전투 - ‘하에바루 문화센터’

1990년대 이후 전쟁체험자의 감소에 따라 전쟁 기억은 ‘사람’ 중심에서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사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물’의 하나인 전쟁 유적은 근대일본의 전쟁을 생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조사와 보존 운동에 시민과 연구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을 경험한 오키나와현 내에는 1,077곳(2014년 현재)의 전쟁 유적이 남아 있는데,<sup>21)</sup> 이 전쟁 유적은 전쟁체험자의 증언과 함께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전하는 역사적 자료로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근대의 전쟁 유적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사와 연구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도 있었지만,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으로서 참호(壕)의 고고학적 조사로 전쟁의 실상을 밝혀온 도마 시이치(當眞嗣一 1984:2)에 의해 ‘전적고고학’(戰跡考古学)이 제창되었고, 현재 일본 전역에서 전시의 군수공장, 방공호 등의 전쟁 유적을 조사해 연구·보존하는 학문으로 자리잡았다.<sup>22)</sup>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이 개관하고 이듬해인 1990년, ‘히메유리 학도’ 240명이 간호 요원으로 배치된 하에바루의 구 육군병원과 병원 참호가 지역의 전쟁 기억의 중심에 있는 하에바루초(南風原町)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하는 증거로서 ‘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루 참호군(壕群)’을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전쟁 유적으로서 일본 최초로 마을의 문화재로 지정했다.<sup>23)</sup>

21) 오키나와 본섬 북부 145곳, 중부 193곳, 남부 425곳, 주변 낙도 69곳, 미야코 제도(宮古諸島) 78곳, 야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 134유적, 다이토 제도(大東諸島) 33곳이다(沖繩県立埋蔵文化財センター編 2017).

22) 1997년 결성된 ‘전쟁유적보존전국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일본에는 342개소의 전쟁 유적이 존재하며, 이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39개소, 국가등록문화재가 96개소이다(戦争遺跡保存ネットワーク 2022).

23) 이를 계기로 하여 히로시마의 원폭돔(구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을 사적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보존 청원 운동이 고조되었다. 1995년 문화청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막부 말기나 메이지 초년까지의 유적이 사적 지정 대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대상 시기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1995년에 원폭돔은 국가 지정의 사적이 되었고, 1996년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라 참호군’의 문화재 지정과 보존·활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에바루의 박물관 시설인 ‘하에바루 문화센터’이다. 1989년에 개관한 ‘하에바루 문화센터’는 육군병원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과 마을 내의 참호에서 나온 약품과 일용품, 무기·탄약, 살아남은 체험자의 증언 등을 전시하여 지역의 전쟁 기억을 통해 오키나와 전투 전체적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사실 오키나와 전투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전쟁 유적이 남아 있었음에도 전쟁 기록이 없었던 하에바루에서 전쟁 기억을 발굴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1983년 11월 12일 현립 하에바루 고등학교 축제에서 개최된 학급 전시였다. 당시 교사였던 요시하마 시노부(吉浜忍, 후의 오키나와 국제대학교수)의 지도하에, 하에바루의 참호와 마을 관공서에 남아 있는 『전몰자 명부』 등을 조사한 학생들이, 교실에 부상병이 누워 있는 이층침대를 재현하고 하에바루 출신 전사자의 통계 그래프와 수집한 전쟁 유품 등을 전시하였다. 교실 유리창을 통해 지역의 전장을 보여주고 참호의 현장감을 전달하고자 한 전시 연출과 해설사로서 전쟁의 비참함과 어리석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설명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전시를 계기로 하여 하에바루의 아자(字)<sup>24)</sup> 별 모든 집의 오키나와 전투 체험을 조사하는 하에바루의 오키나와전 전재실태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吉浜忍 2010:74-76).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3년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는 현지 고교생, 대학생, 청년회, 부인회 등 대부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조사원으로 참가해 지역의 오키나와 전투를 차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의식되기 시작했다.<sup>25)</sup>

한편, 지역의 오키나와 전투가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하에바루에서는 전통적인 지역 역사와 문화,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을 수집해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 ‘하에바루 문화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24) 시정촌 내를 세분한 구획의 이름.

25) 조사원이 발굴한 전쟁 체험은, 12 아자의 전재조사보고서와 『하에바루 육군 병원 참호』, 『또 하나의 오키나와 전투 하에바루의 학동 소개』를 합친 『하에바루 오키나와 전투전재조사』(南風原町沖繩戰災調査, 전 14편)로 발행되어, 1996년 12월 ‘제17회 오키나와 타임스 출판 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했다(南風原町史編集委員會 2005:54).

1986년 하에바루의 조초(町長)로 당선된 가네시로 요시오(金城義夫)는 학교의 급식센터 이전에 따른 철거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발족해 ‘하에바루 문화센터’ 개관을 이끌었다. 마을 관공서의 간부, 의원, 연구자, 지역민이 모이는 검토위원회에서는 문화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마을의 예산으로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훌륭한 시설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었고, 눈에 띄는 관광 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 표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센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더글라스 러미스(C. Douglas Lummis, 당시 류큐대 교수)의 설득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문화 계승이 위태롭다’라는 가네시로 조초의 호소에 힘입어 검토위원회 발족 3년 만인 1989년 11월 3일 ‘하에바루 문화센터’가 개관했다(大平一枝 2016.2.11.).

상설전시는 <하에바루와 오키나와 전투>, <전후 제로로부터의 재건>, <이민>, <사람들의 삶>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지금까지의 아자(字) 별 오키나와 전투의 전제실태와 성과를 접목한 <하에바루와 오키나와 전투>는 전직 군의관과 위생병, 간호사, 현지 고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오키나와 육군병원 참호의 재현 전시로서, 당시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참호의 유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에바루 육군병원 참호를 재현하여 공개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존재는 오키나와 육군병원 하에바루 참호 군의 보존과 활용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90년에 병원 참호 군이 전쟁 유적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오키나와 전투의 부(負)의 유산’(第32軍司令部壕保存・公開検討委員会 2021:5)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센터 설립에 이어 참호의 보존과 공개를 위해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2007년 육군병원 참호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양호했던 20호 참호를 정비·보강해 평화 학습의 장소로서 일반 공개한 후 ‘히메유리’의 무대가 된 장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하에바루는 전국에서 방문객이 모여드는 관광지가 되었다.<sup>26)</sup>

26) 2007년 20호 호가 일반 공개된 이후 참호 견학자를 포함한 ‘하에바루 문화센터’의 방문자 수는 연간 3만 명을 넘고 있다(大平一枝 2016.6.25). 이는 하에바루 인구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하에바루의 인구는 2010년 35,244명, 2015년 37,520

문화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2009년, 새로운 문화센터가 육군병원 참호가 있던 언덕 기슭으로 이전 개관하였다. 마을 주민이 직접 참가하여 만든 전시에는 2007년 일반 공개된 20호 참호가 약 25m 길이로 재현되어 지역의 전쟁특징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의 체험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하에바루의 전쟁 유적과 문화센터의 전시는 전쟁체험자를 대신해 오키나와 전투를 전하는 가타리베(語り部, 자신이 겪은 체험을 말로 전하는 사람)가 되고 있다.

##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하에바루 문화센터’를 통해 오키나와 전투를 기억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풍화시키지 않고 차세대에 알리려는 오키나와현의 노력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쟁 기억의 재현을 둘러싸고 일어난 행위 주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기억 은폐에 의 저항을 보여준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증언사’에서 ‘설명사’로 기억을 재현하는 주체의 변화를 통해 전쟁체험자에서 비체험자로의 기억 계승의 가능성을 보여준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전쟁 유적을 통해 지역전쟁의 실상을 부각시키고 기억의 계승과 전승에 선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하에바루 문화센터’는, 전쟁의 비체험자들만으로 오키나와 전투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억을 남기고 전하는 장, 지역의 전쟁 기억을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두 가지 지적을 해두고 싶다. 첫째 이들 박물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에는 국가에 의한 오키나와의 ‘피해’가 중심에 있다. 피해자로서의 오키나와 현민, 전쟁체험자, 전쟁 유적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황군’으로서 전쟁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실, 즉 일본인으로서의 가해자성 자각, 가해자로서의 오키

나와의 기억이 피해자의 기억으로 희석되어 갈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오키나와의 비참한 전쟁 기억과 전쟁 유적은 평화 학습을 위한 장소가 되고, 박물관과 전쟁 유적 투어는 오키나와 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키나와를 찾는 본토의 일본인들이 오키나와 전투를 기억할 때 요구되는 것은 원폭이나 공습과 같이 일본인의 전쟁 피해로서의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이 아니라, 오키나와를 버림돌로 쓰려고 한 일본인의 전쟁 가해로 기억할 책임일 것이다.

## ■ 참고문헌

- 다마시로 후쿠코, 장수희 역(2019),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 재고- 공범화 개념으로 보는 식민지주의와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제47호, 435-472.
- 야카비 오사무(2009), 「‘오키나와’를 둘러싼 논쟁·논의:평화자료관 문제/오키나와 이니셔티브 논쟁/ 오키나와 연구학회에서 황족의 기념강연 문제」, 다카하시 테쓰야 편, 임성모 역, 『역사인식 논쟁』, 동북아역사재단, 196-203.
- 조성운(2011), 「전쟁의 기억과 재현-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 자료관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Vol.35 No.1·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75-96.
- いとうたけひこ·宮崎郁江·杉田明宏(2012), 「沖縄の各都道府県別の慰霊塔・碑の特徴—テキストマイニングによる分析」 『トランセンド研究 : 平和的手段による紛争の転換』, 第10巻第1号, 트란센드研究会編, 10-23.
- 石原昌家·大城将保(2002), 「監修委員の視点」, 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 『焦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55-294.
- 石原昌家(2002), 「歴史改ざんの全国的動向」, 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 『焦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105-127.
- 沖縄県子ども生活福祉部保護・援護課(2019), 「県内慰霊塔(碑)管理状況等実態調査-結果報告」.  
<https://www.pref.okinawa.jp/site/kodomo/hogoengo/engo/documents/h30ireitouchousakekka.pdf> (검색일:2023.9.5.)
- 沖縄県立埋蔵文化財センター編(2017), 『沖縄県の戦争遺跡パネル展(図録)』.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編(2007),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総合案内—平和の心を世界へ』.
- 沖縄県HP  
<https://www.pref.okinawa.jp/site/kodomo/heiwananjo/heiwa/7623.html>  
(검색일:2023.9.5.)
- 大城将保(1983), 「沖縄戦における戦死者数について」, 『沖縄史料編集所紀

要』(8), 55-71.

大城将保(2002), 『沖繩戦の眞実をめぐって』, 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 『焦点・沖繩戦の記憶』, 社会評論社, 15-59.

大平一枝(2016.2.11.), 『沖繩陸軍病院南風原壕を“奇跡の戦跡”にした男たち 第2回 「沖繩戦の本物の壕を公開する」 14年かけた町長の挑戦』, 幻冬舎公式ウェブマガジン 『幻冬舎plus』.

<https://www.gentosha.jp/article/4958/> (검색일:2023.9.5.)

大平一枝(2016.6.25.), 『沖繩陸軍病院南風原壕を“奇跡の戦跡”にした男たち 第4回町職員が掘り起こした戦死者たちの叫びを体験できる文化財へつなぐ』, 幻冬舎公式ウェブマガジン 『幻冬舎plus』.

<https://www.gentosha.jp/article/5788/> (검색일:2023.9.5.)

眞嗣一(1984), 『戦跡考古学のすすめ』, 『南島考古学だより』, 第30号, 沖繩考古学会, 2.

桜澤誠(2015), 『沖繩現代史－米国統治, 本土復帰から「オール沖繩」まで』, 中公新書, 2015年.

新崎盛暉 (2005), 『沖繩現代史 新版』, 岩波新書.

嶋津与志(1983), 『沖繩戦を考える』, ひるぎ社.

戦争遺跡保存ネットワーク(2022), 『戦争遺跡－指定・登録文化財の動向』.

<https://sensekinet.jimdofree.com/> (검색일:2023.9.9.)

松永勝利(2002), 『新沖繩県平和祈念資料館問題と報道－取材の現場から－』, 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 『争点・沖繩戦の記憶』, 社会評論社, 131-209.

南風原町史編集委員会(2005), 『南風原町史第7巻社会・文化編 ゼロからの再建－南風原戦後60年のあゆみ』, 沖繩県南風原町.

南風原町総務部企画財政課(2023), 『南風原町人口ビジョン(改訂版)及び南風原町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の実現に向けた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案)』.

<https://www.town.haebaru.lg.jp/docs/2023021500012/files/00-1.pdf>

(검색일:2023.9.5.)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2020.5.31.),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資料館だより』, 第65号, 1-15.



[https://www.himeyuri.or.jp/wp/wp-content/uploads/dayori-new-065\\_20200531.pdf](https://www.himeyuri.or.jp/wp/wp-content/uploads/dayori-new-065_20200531.pdf) (검색일:2023.9.5.)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2004),『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ガイドブック(展示・証言)』,財団法人沖縄県女師・一高女ひめゆり同窓会.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2010),『未来へつなぐひめゆりの心: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20周年記念誌』 沖縄県女師・一高女ひめゆり同窓会立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2006),『青山学院高等部入試問題に関する特集』,  
平岡敬(1996),『希望のヒロシマー市長はうったえる』,岩波新書.

保坂廣志(2002)「沖縄県八重山平和祈念館－「戦争マラリア」資料館の問題  
点とその課題」,石原昌家・大城将保・保坂廣志・松永勝利,『焦点・  
沖縄戦の記憶』,社会評論社,211-253.

山辺昌彦(1998),「平和博物館の侵略・加害展示に対する攻撃」,藤原彰編,『南  
京事件をどうみるか』,青木書店,159-171.

吉浜忍(2010),『沖縄陸軍病院南風原壕』,高文研.

第32軍司令部壕保存・公開検討委員会(2021.3.29.),『第2回会合資料②沖縄陸  
軍南風原壕群の事例について』,沖縄県.

[https://www.pref.okinawa.lg.jp/site/kodomo/heiwadanjo/heiwa/docum  
ents/siryou2-2.pdf](https://www.pref.okinawa.lg.jp/site/kodomo/heiwadanjo/heiwa/documents/siryou2-2.pdf) (검색일:2023.9.5.)

❖ ABSTRACT

How to remember the war in Okinawa  
– Centering on Museums –

LEE, Mi-Ae

Hallym University,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eace Museum in Okinawa attempts to remember the Battle of Okinawa and w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do so, give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versus Okinawa remains a confrontational structure i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Battle of Okinawa.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war is remembered in Okinawa through three museums: The 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which epitomizes the tense relationship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ver the Battle of Okinawa, Himeyuri Peace Museum, widely known for its activities to convey memories of the battle of Okinawa through testimony from experienced people, Haeburu Cultural Center, which remembers the war through the remains of the war in the region.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inking about the role of museums as places for the transmission and sharing of war memories in an era when the subjects of war memory are shifting who remembers war from those who have experienced war to those who have not.

Keywords: Battle of Okinawa, War Memories, Okinawa Prefectural Peace Memorial Museum, Himeyuri Peace Museum, Haeburu Cultural Center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